



통권 149 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4. 3. 5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



3·1절 85돌을 맞아, 통일연대 7대중단·민화협이 함께하는 민족공동행사 추진위원회 주최, 한국종교인 평화위원회 주관으로 탑골공원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 민족대회'가 열렸다. 대회에서 남과 북이 서울과 평양에서 따로 행사를 하면서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사진: 민중의 소리>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현 회장 • 2 / 이달의 시 해방글단 • 5 / 특집 I - 6자회담에 비춰진 한반도 주변정세 이환웅 통일뉴스 상임고문 • 6 / 특집 II - 다가오는 통일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 8 / 기획 I - 하청노동자가 사는 법 박수경 노동과세 계기자 • 10 / 기획 II -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 1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박종민선생님 라현윤 유뉴스 기자 • 14 / 감옥에서 온 편지 김정배 · 이영석 • 16 / 양심수가족을 찾아서 오영순 편집위원 • 18 / 이런 회원 - 김재현님을 만나 김혜순 회원 • 20 / 산행기 유병수 회원 • 21 / 시사만화 • 22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3 / 재정 보고 • 31 / 회비납부 • 32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874-4063 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naver.com

민가협: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범죄자를 감옥으로! 양심수를 가족 품으로! 사법정의를 세우라!

권오헌 회장

헌법상 국회는 삼권 분립원칙에 따른 입법권을 행사한다. 그밖에도 예산안 등을 심의 확정하고, 조약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권, 국정감사권,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는 다. 또한 이러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에서 직무상에 따른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특권을 갖는 국회의원은 또한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다해야 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얻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헌법상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서도 의원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라는 곳, 그리고 그곳에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민대표기구,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었는가! 한마디로 아니었다. 오히려 가치관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회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만 있을 뿐 빛바랜지 오래였다. 1년 열 두 달을 역겨울 정도로 정권쟁탈을 위한 진흙탕 싸움질만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면서 정작 해서는 안 될 일은 게 눈 감추듯 해치우고 있었다. 임시국회가 마감되는 이 순간까지 수많은 민생법안을 비롯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이 법안은 3.2일 가까스로 통과시켰으나 조사대상자를 축소하는 등 반민족 행위의 면죄부가 되게 했다), ‘6.25 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 특별법’, ‘민주화운동관련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등은 본 회의에 상정조차 못한채 잠자고 있다.

반면에 국회, 국회의원 정치권은 엄청난 범죄행위를 자행했었다. 대선자금 마련에 국세청장을 동원했고, 안기부돈(국고 금)을 제멋대로 썼으며, 기업들을 공갈 처 수억,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차떼기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 더러운 침략전쟁터로 보낼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농민 농업 농촌을 파탄 낼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비준동의안을 일사천리로 해치웠다. 직무상 활동과 관련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만든(사실 이러한 조항은 없어야 한다) 불체포, 면책특권 등을 악용하여 끝도 없는 방탄 국회를 열고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폭로정치 등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이 구역질나는 일들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른바 여소야대 시대, 어떠한 법률안이라도 제1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거뜰히 해낼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차떼기 등 비리혐의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지난 2월 9 일에는 박종회(한나라당)의원 등 31명이 제안한 비리 의원 석방요구 결의안을 158명이나 되는 의원들의 찬성으로 범죄인을 탈옥시키는 범죄행위까지 저질렀다.

이렇게 전형적인 부정비리 범죄자가 탈옥했던 그 감옥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 차떼기는 그만두고 억, 천, 백, 십만원도 아닌 한끼 밥도 이어갈 수 없고 한평 잠자리도 없어 200원어치 과자를 훔쳐 교도소 가길 자청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아니 하루에도 몇 건씩 보도되고 있는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 자식들마저 함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가슴 아픈 사

연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불균형한 사회 구조속에 생존을 위한 범죄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법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을 잡아 가두고 유죄판결을 내려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가난으로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 일터잡기가 힘들고 그래서 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 속에 마지막 가는 곳이 죽음 아니면 감옥이었다. 그들은 풀려나온다 해도 상당부분은 사회적 냉대 속에 발붙일 곳이 없어 누번으로 이어지고 사회보호법을 적용받아 감호소로 가기도 한다. 물론 형사 피의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범죄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야만적인 각종 차별 등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 같은 생존을 위한 범죄는 그 당사자 책임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이 크고 더 엄격히 말하면 국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넓은 의미의 정치범일 수도 있다. 그리고 차폐기 도둑들과 대조되고 있다 할 것이다.

감옥에는 권력형 부정비리 범죄자나 배고파 담을 넘은 사람들만 갇혀 있지 않다. 개인이나 소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공동선을 위해 불이익이 있음을 알면서도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이 있다. 이들은 정치적 도덕적 학문적 종교적 확신으로 활동하다 구속된 확신수이기도 하다.

이들은 외세와 분단 시대, 부당한 권력과 가진 자에 맞서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개선을 위해서, 사회진보와 생존권을 위해서 헌신하다 구속된 의인들이다.

참된 민주사회, 문명사회라면 양심수는 처음부터 구속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위정자들은 이들의 주장

을 정책에 반영시켰어야 했다. 양심수들은 잘못된 법과 제도, 정책, 관행에 구애받지 않고 역사와 민중이 요구하는 보편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존권과 행복을 추구해 왔었다. 그러나 국가권력은 법과 질서를 내세우며 잘못된 실정법을 적용시켜 이들을 잡아가두고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인권변호사로 활약했었으며 국가보안법 개폐를 말하고 한총련 합법화, 합리적 노사관계를 말해왔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양심수는 사라지지 않았다.

개혁과 통합, 평화와 번영,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를 내건 참여정부 출범 1년(2003. 2.25~2004.2.24) 동안 357명의 양심수가 구속되었다.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 78명을 비롯하여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 위반혐의였다. 한총련 불 탈퇴 혐의 등 학생이 99명, 파업 등 혐의로 구속된 노동자가 181명, 통일운동 등 재야인사가 60명, 농민 11명, 군경 6명이었다(2.24일 현재 민가협 통계). 이들에게 적용된 법규나 신분에 관계없이 이들은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자주통일 운동을 하다 구속되었고 미국의 조국반도에서의 전쟁채동에 반대하다, 더러운 침략전쟁 파병반대로, 미선이 효순이의 억울한 죽음의 촛불 집회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 정리해고, 직권중재, 손배, 가압류 등에 맞서다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반대, 부안 핵폐기장 반대, 주거권을 위한 철거반대 등 활동을 하다 구속되었다.

6·15 공동선언 시대 이미 그 존립명분을 잃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있고 집시법은 더욱 가혹한 탄압수단으로 개악되었다. 합법적 파업마저 공안대상

으로 몰고가는 그리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손배, 가압류 등 노동관계법이 존재하는 한 양심수는 이어질 수밖에 없고, 반문명 야만행위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감옥에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양심수 17명을 비롯하여 91명이 갇혀 있다. 학생이 15명, 노동자 41명, 농민 8명, 재야인사 24명, 군경 3명 등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구속대상이 아니었듯이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갇혀있는 양심수뿐만이 아니었다. 한총련 대의원이란 이유로 길게는 7년까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정치수배로 쫓기고 있는 100여명 학생들이 있고 노동쟁의 과정에서 수배된 노동자들이 있다. 또한 양심수로 갇혀있다 출소했지만 사면, 복권이 안되어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과 참정권 행사 등을 제한당하고 있다.

오랜 수배생활로 불치의 병까지 앓게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빈소도 찾지 못하는 반인륜, 반인권 행패는 이제 끝나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른바 대북송금과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당사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말한 바 있다. 이들은 민족의 화해협력을 위한 확신으로 송금 했던 만큼 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특검을 반대하고 무죄석방을 요구한바 있었다. 뒤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차떼기 등 부정비리 범죄자를 빠짐없이 구속처벌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송두율, 민경우, 김형주, 민기채 등 관련양심수를 사면, 복권하라!

집시법 개악을 철회하고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모든 관련 양심수를 사면, 복권하라!

대통령 특별 사면을 앞당겨 강병기, 박용진 등 출소양심수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그저 웃습니다...



두려움 없이 오는 봄

‘해방글터’

비 그치지 않는 저녁 출근 길
모과나무 가지마다 맺힌 봄눈 새순을 보았다
지난 한 해는 정말 힘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고
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거리로 내 몰렸다
모두들 자본과 싸움에서 졌다고 했다.

올 해 싸움마져 진다면 노동자의 삶은 끝장이라고들 한다
이 싸움이 시작되면 나는 비켜서지 않고
용감히 싸우고 있을까
아니면 새순 맺힌 가지마다 꽃피고 꽃 질 때
싸움의 한 복판에서 도망친 내가
무심한 얼굴로 통근 버스나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따라 버스는 더디 오고 울음이 눈 안에 서성인다
서른이 넘은 나이에 운다는 것은 고단한 노동이 가져다 주는
슬픈 가난 때문은 아니다
노동자로써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자 했던
내 자신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아침, 저녁 통근 버스를 기다리는 침산2동 동사무소 옆
모과나무 수 천의 가지에 맺힌 새순이
두려움 없이 노동의 봄을 부른다
‘피하지 말고 싸우라고 두려움 없이 싸우라고’



‘해방글터’는 노동자들의 시 창작 집단입니다.

이번 6자회담, 성공한 회담이라 보기 어렵다

이활웅 통일뉴스 상임고문

[편집자주] 통일뉴스(www.toingilnews.com)에 실린 글입니다. 현 정세와 관련돼 좋은 글이라 판단되어 통일뉴스 측과 협의 하에 실습니다.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6자회담은 6월 말 이전에 다시 만난다는 원칙적 합의에 따라 그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키로 했다는 의장성명을 내고 막을 내렸다.

결렬되지 않고 회담의 연속성을 유지했으니 아쉬운 대로 성과가 있었다고들 서울에서는 평하고 있는 듯하다. 워싱턴 당국도 이번 회담에서 참가국들이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바란다는 대원칙에 동의한 것이 성과였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그러나 회담의 핵심과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 진전도 없었으니 이를 성공한 회담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지로부터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측은 유연한 자세로 군사적 핵계획의 궁극적 폐기를 향한 선행 조치로 현존 핵 활동을 동결할 용의를 표명했는데 반해 미국 측은 시종 북한이 먼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을 폐기한 후 북에 대한 경제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고자세로 일관했다 한다.

그래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은 신축적이며 합리적이었다는데 미국은 너무나 경직된 자세로 일관했다면서 문제는 북한보다도 미국 쪽에 더 있다고 평했다한다. 또 일본측 인사들도 미국이 그가 주장하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계획의 존재를 입증할 아무 증거도 내놓지 못한데 대해 실망을 표시했다한다.

6자회담 참가국들의 입지와 역할

어쨌든 중국은 회담주최국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높

이면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잇속을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 러시아도 6자회담 덕으로 한동안 잃었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참여자격을 회복하였으니 내심 흡족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 마치 미 국방부 매파들을 방불케 한 한승주 주미대사의 강성발언이 있어 회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 걱정스러웠는데 이수혁 수석대표는 북한 김계관 대표와 직접 접촉을 하는가하면 중국 및 러시아와 더불어 북한이 우선 핵을 동결하면 에너지 지원을 하겠다는 제의를 하는 등 중재노력을 하여 보기에 나쁘지 않았다. 미국과 싸고 한 것이 아니고 자주적으로 한 일이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일본은 철저히 미국의 종자노릇을 했다. 마치 똥 눈 높이 방귀 쏜 눈에게 성내고 따지듯 이 기회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려했지만 호응을 얻을 까닭이 없었다. 하지만 2차대전 패전 후 국제정치무대에서 3등국 대우에 만족하던 일본이 한반도문제에 다시 주변강국으로 끼어들게 되었으니 불만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원했던 북한에게 6자회담이 달가웠을 리는 없다. 북한은 1994년 기본협정의 의무사항으로 2, 3년 내에 완공할 예정이던 중수로 2기의 건설을 중단했는데 그 대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속된 경수로 건설은 중단됐다. 또 NPT(핵확산 금지체제)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받는 대가로 미국이 주기로 약속한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보장은 받지도 못 한 채 오히려 핵 공격 대상국으로 지목 받았다.

즉 줄 것은 다 주고 받을 것은 8년간의 중유 공급 외에 아무것도 못 받은 채, 협정위반의 혐의로 6자회담에 불려나와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런즉 6자회담에서

북한이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결국 본전치기 이상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6자회담, 애초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지금의 북한 핵 위기는 미국이 2002년 10월 북한이 우라늄 핵계획의 존재를 시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사태이다. 그 때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거부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중국을 끼어 넣은 3자회담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으니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5자회담으로 확대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도 부르자고 해서 성사된 것이 지금의 6자회담이다.

취임 이래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일방주의 외교를 강행하던 부시가 북핵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면서 유독 이 문제만은 그가 기피하던 다자외교로 다루고자 한 속셈은 여려가지다. 북한을 약속위반으로 몰아 1994년 10월의 북미 기본협정상 의무를 벗어나자는 것이 그 첫째이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장차 대북 경제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짐을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떠넘기자는 것이 그 둘째이다. 셋째는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에 한반도 주변제국들을 동참시키자는 것이다. 그 외에 고이즈미 일 수상의 방북에 따른 북일 접근을 막자는 것, 한국의 대북 화해정책에 제동을 걸고 남북간 갈등을 조장시키자는 것도 숨은 목적들이다.

6자회담의 성사로 미국은 첫째와 둘째의 목적은 이루었다. 그러나 셋째 목표는 미국의 뜻대로만 돌아가지는 않는 듯 하다. 왜냐하면 6자회담의 성사 및 정례화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독점하던 미국의 지위가 주변제국, 특히 중국에 의해 많이 잠식되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장단에 맞추어 대북압력의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독주를 좌시만 할 자세가 아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도 종래와 같이 무조건 미국을 위해 입안의 혀 노릇을 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외교는 받는 것과 주는 것을 자국의 이익에 가장 합치

되도록 조정하는 것인데 부시는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할 심산이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꺾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6자회담에서의 미국의 꼴이 아닌가 싶다.

핵심쟁점에 아무 진전을 못 본 이번 6자회담을 미 정부가 잘 된 것이라고 평하는데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부시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의 외교적 실책을 자인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비밀 핵개발 계획의 존재를 시인했다며 당장 큰일이나 날것처럼 날뛰던 미국이 왜 6자회담에서 조속한 타결을 기하지 않고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제안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지는 이해하기 곤란한 대목이다. 스스로를 “전쟁 대통령”이라고 공언한 부시가 궁극적으로는 외교협상이 아니라 무력으로 해결할 생각인지는 늘 경계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남북 공조체제 구축 가능성 넓어져

제3차 6자회담이 6월말 이전에 열릴 가능성은 그 동안에 부시의 재선 전망이 결정적으로 밝아지지 않는 한 현재로서 희박해 보인다. 회담의 연속성을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한다지만 본회담에서 핵심문제를 타협보지 못했는데 실무자들이 모여서 무슨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

6자회담은 부시의 작품이지만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미국의 이익대로만 돌아가지 않는 괴물로 변했는지도 모른다. 이 회담에서 미국이 직면한 그의 한반도에서의 독점적 영향력에 대한 도전은 앞으로 보다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배경 하에 남과 북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가면서 주변제국에 대한 능동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한다면, 동북아집단안보체제의 테두리 속에서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을 남북화해를 방해하기 위한 군사력이 아니라 지역 내 안보에만 전념하는 군대로 탈바꿈시키게 되면 남북화해와 궁극적인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 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위하여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헌법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과 이에 근거한 국가보안법의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북은 반 국가단체이고 통일의 방식은 북의 와해를 통한 통합이다. 한나라 당, 조선일보 등이 이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보고 남의 주도하에 점진적인 흡수통일을 하는 발상이다. UN동시가입, DJ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남측의 주류 정치세력의 입장이 여기에 속한다. 6·15선언에서는 연합체안으로 정식화된 바 있다. 셋째는 통일 지향적인 남북관계이다. 91년 남북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라 규정한 바 있고 6·15선언에서는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으로 정식화된 바 있다.

위의 세 가지 입장 중에서 첫 번째 입장을 대표하는 냉전수구세력은 현재 집중적인 타격을 받으며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민대중의 의식 수준이 조악한 보수 반북 논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의 대한 정책의 방향 또한 한나라 당과 같은 극단적인 정치세력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남북관계를 둘러싼 각측은 남북간 관계를 두 개의 국가, 평화공존, 점진적인 흡수 통일로 보느냐 아니면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 민족공조와 단합으로 보느냐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 후자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은 아직 뚜렷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길과 세 번째 길의 갈림길은 첫째, 향후 다방면적으로 확대 발전할 남북관계의 방향 둘째, 동북아시아에서 외교 관계의 방향, 자본·기술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

북미대치가 해소되면 남북관계진전이 본격화 될텐

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가령 남북장관급 회담을 상설화하는 문제가 나설 경우 상설화된 이 기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위 기구는 두 개의 국가간에 상호협력을 위한 기구인가 아니면 통일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과도적인 민족기구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기구의 성격은 기구의 역할을 좌우한다. 전자라면 북에 대한 인도적, 경제적 지원, 이산가족 문제 등 남측의 체제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북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수적 의제만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라면 남북을 하나의 실체로 두고 상호 화합적 결합을 지향하는 대담한 경제협력 구상이나 민족내부의 갈등-대립 관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국가보안법 체제의 와해 등은 논의의 과제이거나 부수적인 문제이다. 이런 양상이라면 당연히 미·일 간의 협력 관계가 보다 중요해질 수 있다.

양자의 입장 차이는 이 기구의 지위를 둘러싸고도 진행될 것이다. 전자라면 이 기구는 남북의 두 개의 국가의 협력 관계를 조절하는 협의기구이다. 따라서 이 기구의 법적 지위 따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는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되는 단계는 북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군사분계선 이남에 한정되어 있던 주권이 한반도 전체로 확대될 경우이다. 반면 후자라면 남북에 각기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 정부와 위 기구와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발상은 위 기구가 설사 군사, 외교권 등 국가 주권의 핵심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통일정부로서의 지위를 가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점에 UN의석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을 것이다.

위의 입장 차이는 사실상 조국통일 문제의 핵심적인 쟁점에 속한다. 남북이 두 개의 국가인가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인가? UN에 두 개의 의석으로 개별 가입할 것인가 아니면 단일의석으로 가입할 것인가? 등의 문

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떠나, 사상과 제도를 떠나 전 민족의 이익을 담보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가령 UN의석을 단일화하게 되면 남북이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정치·군사적인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된다.

향후 예상되는 통일 방향의 두 가지 흐름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외교관계, 자본의 흐름과 직결되어 있다.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외교관계의 경우 한미일 공조에 기초하여 북의 점진적인 흡수통일을 지향할 것인가. 남북간 공조에 기초하여 주변 관계를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경제문제의 경우 미국 중심의 금융질서, 중국 경제권에 편입될 것인가, 남북간 경제협력과 유라시아 경제협력구상을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외교적으로 전자의 흐름이 우세하면 통일과정은 요원하다. 노무현 정부 집권 1년의 통일정책이 그러했는데 노무현 정부는 DJ의 정책을 큰 틀에서 계승하면서도 DJ가 했던 남북관계 개선을 주선으로 주변관계를 활용한다는 노선을 한미동맹 주 남북관계 從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로 인해 남북대화의 장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지체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남이 대리하는 이상한 양상이 되풀이되었다.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남북대화가 진행되면서 내용적으로는 지체, 퇴보하는 양상이 거듭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경우 이상태로 가면 금융질서의 차원에서는 미국에, 산업구조의 측면에서는 중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본의 흐름, 경제협력의 방향이 위와 같이 고착되면 위에 편승하는 소수의 세력만이 특혜적 혜택을 입고 한국경제의 민족·민중적 기반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따라서 경제의 흐름을 남북+유라시아 쪽으로 돌리고 이와 동시에 내부적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개괄해 보면

1)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력, 정치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주식시장 40% 이상, 은행 자본에 대한 영향력 제고 등 해외자본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고 수 백조에 달하는 국내 부동산금이 부동산 투기 등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형국이다. 따라서

금융자본에 대한 민족적 억지력은 확보하고 기생, 투기적인 과잉 부동산금을 남북+유라시아 경제 협력 쪽으로 돌려야 한다. 이와 동시에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민대중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2) 자본·기술의 흐름을 한 → 중에서 남 → 북으로 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산업의 보존과 재기를 꾀하고 남는 역량은 첨단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성장이 민족적 발전에 최대한 우호적으로 작용하도록 견인해야 한다.

3) 시장 및 신자유주의 국제질서 편입 방향,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가 유지되는 속에서도 이와 부분적으로 상충되는 흐름이 존재한다. 미국과 EU의 각축, BRIC(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강국), 물라의 경제외교 등이 그러한 예인 데 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내수 시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외교와 경제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주체의 문제이다. 위에서 지적인 내용은 6·15공동선언에 적시된 '우리 민족끼리'에 기반한 전 민족적인 정치적 힘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직결되어 있다. 이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 이후 남북간 대화, 협상의 흐름이 위에서 지적인 흐름 중 어느 쪽으로 발전하느냐, 4·15총선에서 진보적이고 자주적인 정치세력의 진출 정도와 직결되어 있다. 한편 통일과 내부 개혁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의미 있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남북을 포괄한 전 민족적인 문제 설정, 해결과 결합하여 내부개혁을 전망해야 한다는 점, 양자는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통일문제 해결이 갖는 한계 또한 커지고 있다는 점,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따른 사회적 모순의 격화, 환경, 질병(조류독감, 사스), 유전공학 문제 등은 통일을 통한 민족문제 해결의 범위를 뛰어넘는 사안인 듯하다. 실업 문제의 악화, 신용불량자의 격증, 날로 확산되는 기상재해, 새롭게 창설하는 신종 전염병 따위는 현 시대에 대한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고민과 사색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통일, 민족 문제에 대한 기반을 공고히 하되 다양하게 제기되는 여러 사안들에 폭넓은 관심과 세련된 대응이 필요하다.

“당신이라면 이 차별을 견딜 수 있는가”

박수경 '노동과 세계' 기자

[편집자주] '노동과세계' 제 278호에 실린 글입니다.

임금 · 복지혜택 · 존엄성 · 심지어 생명까지도 'B급' 대접

4대 사회보험이 시행되고, 사원아파트 · 체육시설 · 휴게실 등 복지시설도 나아졌다. 그러나 이런 사회보장과 기업복지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는 흔치 않다. 비정규직, 그 가운데서도 한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는 노동자는 늘어만 간다.

금속산업연맹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금속산업 사내하청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실태 연구'에 따르면 정규직이 월평균 226만원을 받는 데 비해 사내하청노동자는 그 60% 수준인 133만원을 받고 있었다. 쉬는 날 역시 월평균 4.77일 : 3.81일로 사내하청노동자는 더 많이 일하면서도 더 적게 받고 있었다.

한 곳에서 같은 일 하는데...

고 박일수 열사 분신항거와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진상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직영노동자의 50% 수준(총액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하청업체는 연월차, 연장근무 · 휴일근무 가산급 미지급, 상여금 미지급 등 근기법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뿐만이 아니다. 하청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식당, 샤워실, 화장실, 커피자판기 뿐이고, 탈의실과 휴게실을 제대로 갖춘 곳은 거의 없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미포조선, INI스틸, 동명중공업 등에서도 하청노동자는 작업복에서부터 사택이나 기숙사를 같이 사용하는 문제, 용자, 자녀교

육, 문화의료, 설거항비, 명절선물 등 기업복지 전반에 갖은 차별을 받고 있음을 금속산업연맹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생명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이 기피하는 3D(유압기계, 중기부품, 도장, 세척공정) 직종에서 심하면 2조2교대로 일하면서, 정기 건강검진은 하청업체가 부담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도 기계, 설비, 원료, 생산공정, 작업방식 등 모든 결정권을 쥔 원청기업이 하청업체에 떠넘기기 일쑤다. 그러면 하청업체는 이를 은폐하거나 공상처리를 강요하는 게 보통이다. 하청노동자 자신도 산재처리가 되면 그 기록이 남아 재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공상처리 하거나 가벼운 경우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월23일 공개 노조활동 선언을 하면서 진용기 씨가 밝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실태는 충격적이다. 진 씨의 폭로에 따르면 이 회사 건조3부에서 일하던 사내하청노동자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11월 작업도중 눈에 철심이 박혀 사무실로 갔으나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철심이 박힌 채 혼자서 병원을 전전해야 했다. 해양사업부에서 일하던 강아무개씨는 지난해 10월 사흘 동안 '철야 24시간-야간 12시간-야간 12시간'을 일한 뒤 탈의실에서 숨졌다고 한다. “산재처리를 한다는 건, 사실상 이 바닥을 떠난다는 거죠”라는 한 하청노동자의 얘기는 이들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눈에 철심 박힌 채 혼자서 병원 전전

인간적 모멸감도 심각하다.

“야이 새끼야, 늦으면 전화를 해알 거 아냐, 사인을

네가 제일 늦게 한 거 알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랄하네. 야이 ×새끼야, 내가 너거 화장실 바꿔줄라고 출근하나? ×같은 소리 하지말고 일이나 똑바로 해. ×같은 너네가 반장하고, 조장하던가, 꼬우면 노동청에 신고해라”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인 경일기업 노동자들이 조출지침을 어기거나, 화장실에 가려 할 때, 월차를 청구하거나 어쩌다 불량을 낼 때, 현장관리자들(조·반장)한테 몇 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폭언이다. 참다 못한 노동자들은 지난 2월3일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듯 모욕적이고 공포스런 작업장 분위기는 비단 경일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아산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가 월차를 쓰려다 식칼테러를 당하면서 드러난 비인간적 노무관리는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라도 결성할라치면 원청기업은 도급계약 해지라는 칼날을 휘두른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는 지난해 8월 설립된 뒤 조합원이 속한 9개 업체가 모두 폐업공고를 냈다. 자연히 노조간부와 조합원은 해고되거나 노조탈퇴를 강요받았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하청업



▲ “모든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해양부 출입구 앞에서 사내 하청노조 김주익 조합원이박일수 열사 영정을 들고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체에서 해고된 노동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출입증을 말소하는 등 다른 하청업체 재취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대미포조선,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도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관리하고 있다.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홍영교 지회장은 “하청노동자들은 대부분 ‘찍히면 불이익 당한

다’, ‘조금만 참자’는 의식이 많다. 원청과 조반장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 만들라치면 ‘계약해지’ 휘둘러

한편 비제조업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전북지역 일반노조 최종훈 사무처장은 “하청노조가 조직된 12개 업체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연월차 휴가를 명절로 대체하거나 한번도 쓰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노조결성 뒤 1년마다 갱신하는 계약을 회피하거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다수 조합원은 노조를 지키려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최 처장은 이에 대해 “노조를 결성한 뒤로는 막 대하던 업체와 정규직들의 대접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은 조작사건입니다.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69일 만이었습니다. 지난 2월 9일, 6명의 우리 동기, 선배, 후배를 69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것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불과 10분여 밖에 떨어지지 않은 수원 구치소에서 그들은 69일이라는 긴긴 시간을 갇혀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 날 학교에서는 환영의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마시는 그 사람들은 소주 한 두 잔에 벌써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 남아있는 4명의 우리 친구들 생각에 술이 한 잔, 두 잔 더 들어갈수록 서로 말이 없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3일 아침 8시경, 아주대 졸업생, 군인, 재학생 총 8명이 자신들의 회사에서, 군부대에서, 자취방에서 동시에 연행되었습니다. 12월 8일과 9일, 각각 군인 두 명, 한명씩이 또 군부대에서 연행되었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둔 지난 1월 18일에는 졸업생 1명, 처음 연행됐던 사람들에게 대한 구형공판이 진행되었던 19일에는 재학생 1명, 그리고 31일에는 또다시 재학생 1명이 연행되었습니다. 그 중 4명은 선고유예, 불구속 수사로 풀려났고, 7명이 재판을 받고 풀려났으며, 지금 3명이 차가운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 14명, 졸업생 3명, 군인 5명, 재학생 6명입니다.

자,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한 학교에서 14명이나 줄줄이 구속되었을까요?

바로 ‘국가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죄’입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주대 내에서’ 자주대오 ‘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하여, 학생회를 배후조정하고, 친북적이고 반국가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하였습니다. 듣기에도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졸업생은 사회에서 학교운동을 배후조정하고 자금을 대었다고 합니다. 재학생들은 학내에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남한 사회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죄 없는 시민과 학생들을 억울하게 잡아가두는 검찰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어느 단체를 조직하고 구성하고 가입하였다면, 그 단체의 강령과 규약, 가입서 등의 증거물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러한 증거물들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주대생 중 그런 문서를 본 사람도 없거니와, 가입서를 쓴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검찰은 학생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등을 가입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 94년도에 세 명이 자주대오를 결성했다고 하나, 지금 사회에서 회사생활을 하시는 그 선배님들은 그 당시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군복무 중이었던 사람들이, 학교에 지하조직을 만드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검찰은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강압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처음 김00씨가 한총련 대의원으로 수배 중 연행되었을 때의 진술서를 내밀면서, 그 진술서에 거론된 사람들을 모두 자주대오 조직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서 들어와서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도, ‘그게 그거다’라며 진술서에 합의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대오 조직원이나” “아니다” “학생회 활동하지 않았나” “했다” “그게 자주대오다”는 식으로 자신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네 이름 다 붙었다, 너만 손해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격리되어 있는 연행자들 사이에 불신감을 조성시키고, 변호사의 입회도 없이 밤 11시도 넘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이 진술서들을 강압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거의 유일한 증거물이 바로 이 (변호사 입회없이 조사된) 진술서입니다.

또한, 검찰은 학생회 체계와 학생회 활동을 자주대

오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소위 ‘자주대오 조직도’는 학생회 체계와 거의 유사합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자주대오의 활동이라는 것들은 ‘전국민중대회 참가’, ‘한총련 출범식 참가’, ‘815대회 참가’, ‘동아리대표자수련회 참가’, ‘확대간부수련회 참가’ 등입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물들은 ‘한총련 대의원 대회 자료집’, ‘농활자료집’, ‘동아리대표자수련회 자료집’ 등입니다. 이러한 조직 및 활동, 자료들은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에 존재합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아주대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대학은 ‘자주대오’를 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대오 조직사건’ …이른바 자주대오(또는 활동가 조직 사건)은 1991년 6월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 조직 사건을 시작으로 2001년 5월 발생한 단국대 활동가조직 사건에 이르기까지, 10여년 동안 26개 대학에서 총 286명의 구속자를 낳은 사건입니다. 이제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이 터졌으니 27개 대학에서 총 300명의 구속자를 낳은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주대오 조직사건’을 실제로 있는 조직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은 지난 기간 일어났던 ‘자주대오 조직사건’과 여러 면에서 흡사합니다. 졸업생, 군인, 재학생을 한데 묶어서 한꺼번에 연행하며, 진술서를 중심으로 증거를 제시하며, 본질적으로 학생운동과 학생회 활동을 탄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월 3일 연행당시, 보안수사대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너희 운동권 총학생회가 당선되었길래 터뜨린 거다’라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아주대에서 학생 운동가들이었으며,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고, 학생회 활동을 했거나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한총련은 현재 이적단체입니다.) 이들은, 학원의 주인은 학생이 되어야 하며, 외세에게 특히 미국에게 휘둘리는 남한사회가 미국에 대한 자주성을 되찾아야 하며,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이 통일되어야 하며,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탄압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

다면, 이들이 이적단체인 한총련 활동을 했다는 것이며, 자주민주통일 활동을 했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검찰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실적 올리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들의 무죄가 밝혀질 것입니다. 2000년도 615 공동선언 이후,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교류하고, 서신을 왕래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통일을 가로막고 억울한 피해자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국가보안법은 빨리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지난 16일 진행되었던 선고공판에서,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서는 거의 최소한의 형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연행되었던 한 명도 그날 군재판 후 풀려났습니다. 재판정에서조차도 검찰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모두들 사회에서 군대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마지막 희생양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조작하고, 학생들을 잡아가두는 경기도 경 보안수사대는 2002년 월드컵 4강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던 수원월드컵경기장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 더 이상 우리의 친구들이 잡혀가고, 우리는 밖에서 항의방문을 진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은 검찰에 의한 ‘조작 사건’입니다. 아주대 내에 ‘자주대오’라는 지하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아직도 감옥에 남아있는 세 명의 친구들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회사생활과 결혼준비를 하시다 69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한 선배님과 그 약혼자분께,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

“남은 생 통일 위해 살고 싶습니다”

2차 송환 촉구하는 박종린 선생(72세)

라현운 유뉴스 기자

많은 동지들이 고문을 받았습니다.
떡방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몽둥이
고문, 앞수정 뒷수정 총대수정 고문,
엎드려 개밥을 먹고 신음소리 전 사
동에 찌르고...
그리고 저는 다시 재판에서 무기징역
을 받았습니다.

박종린 선생을 떠올리며 장기수 선
생 한 분이 쓴 시의 한 구절이다.

그는 무기징역을 한번도 아닌 두
번을 받은 쌍무기 징역자이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던 남측에 내려
왔다. 시대의 희생양으로 백발이 성성해질 무렵에야
감옥 문을 나설 수 있었던 그를 우리는 ‘장기수’ 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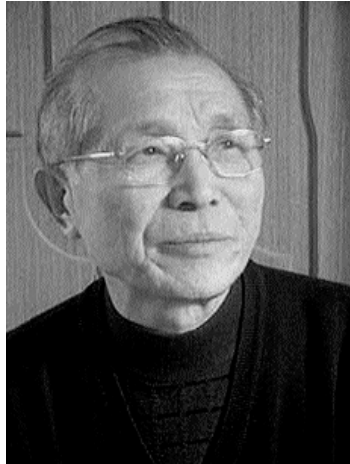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했다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
리 사회에서 외면 받고 있으며,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향자라는 명목이 이미 그들에게 덧씌
워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2차 송환을 요구하며 여전히 희망을 버
리지 않고 있다. 감옥에서 기나긴 35년의 세월을 이겨
왔듯이 말이다.

“오랜 시간 나를 견디게 한 힘은 바로 민족통일입니
다. 모두들 이념과 사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건 둘째
치더라도 통일은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산주의자이기에 앞서 민족주의자
입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통일’ 이라는 풀어야 할 숙제가 남
아있기 때문이다.

박 선생의 고향은 남측도 북측도 아닌 중국 길림성



훈춘이다. 부모님이 독립운동을 벌이
다 일제를 피해 중국까지 쫓겨 와야
했기에 그의 유년기는 낯선 땅에서의
기억뿐이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던 시기, 8·
15 해방이 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가족과 함께 돌아왔지만 아
버지는 끝내 고국을 보지 못한 채 눈
을 감아야했고, 그와 가족들은 6·25
전쟁 속에서 두 동강이 난 조국을 지
켜보아야 했다.

“그때가 분단이 결정되고 전후 복
구 과정이었는데, 남측의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외치
기도 했지만 한쪽에서는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
의 진보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게 북측의 민족통일 방안을 설명하고 함께 논의하기
위해 남측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내려가자마자 바로
잡혀버린 겁니다.”

통일을 위해 내려왔었지만 정권의 정당성 찾기에 혈
안이 되어 있던 남측 정부에 의해 만난 적도 없는 의원
들과 함께 ‘모란봉간첩단사건’의 주범이 되어있었다.

그러나 재판을 갓 시작했을 때 4·19가 일어나 함께
잡혀들어 왔던 의원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기 시작했
다.

“그때는 풀려날 줄 알았습니다. 남측 민중들의 쫓기
를 보며 통일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면서 낙관적으로
봤었거든요.”

하지만 4·19도 그 어마어마한 죄목인 ‘간첩’ 이라
는 명목을 씌어주지는 못했다. 당시 연루됐던 간첩단
사건의 유일한 무기징역자로서 그의 기나긴 35년 감
옥생활은 시작된다.

당시 그의 나이 27세. 홀어머니와 결혼한 지 1년 된 아내 그리고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평양에 두고 떠나왔을 때였다.

최근 중국에 사는 친척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어머니와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딸과 손녀들이 살아 있다는 얘기만을 전해들은 것이 그가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해 아는 전부이다.

이미 알려졌듯이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하에서의 감옥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그는 회고했다.

“그때는 모두가 정말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영양 실조에 병들고 맞아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당시를 회상하는 듯한 그의 눈가가 어느새 젖어있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라는 듯.

하지만 60년대 말부터 적십자회담과 7·4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된 그는 감옥에 있는 좌익수들과 함께 인간적 처우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간수를 통해 구입한 라디오로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라디오를 통해 여러 정세들을 파악한다는 사실이 3년 만에 발각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했던 그는 무기징역에 또 하나의 무기징역을 얻어 쌍무기징역자가 된다.

1993년 12월 24일, 감옥을 찾은 종교인과의 자매결연이 인연이 되면서 그를 보호하겠다는 교회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35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 그는 전남 무안 시골교회에서 6·15가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될 때까지 숨어있었다시피 지내야했다.

6·15 이후 장기수들의 송환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로 올라왔지만 이미 송환명단에 그는 없었다. 감옥을 나오면서 썼던 서류 한 장이 그도 모르는 사이 그를 전향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결국 그는 29명의 장기수들과 함께 2차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송환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비전향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악이 안 되어서, 가족들 때문에 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향자의 경우도 스스로 전향을 한 것이 아니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게 하는 등 강제로 전향을 시킨 것이라 전향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송환대상에 원한다면 장기수들의 가족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이산가족을 만들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명예회복은 둘째치더라도 정부 스스로가 이미 전향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했기에 강제 전향자 또한 함께 송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송환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물음에 북에 있는 가족과, 감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동지들을 만나고 싶다고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 남지 않은 생이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한다.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그런 날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고문으로 인해 몸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그의 나이가 이미 72살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의 꿈이 이뤄질 수 있을지..., 답은 이제 정부의 몫인 듯 하다. ~~하~~

부당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철회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정배입니다.

흔히 말하는 새해라는 것이 밝은 지도 이미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새해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새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런지..., 아 니 우리가 만들어야 하겠지요.

제가 이곳에 수감된 지가 벌써 4개월 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첫눈을 맞으며 추위를 걱정하던 때였는데 어느덧 2004년의 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민가협이란 곳과 이렇게 인연이 닿을 줄은 정 말이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고 벌써 두 번씩이나 영치금을 보내주시는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진작에 편지라도 띄워서 고마움을 전해야 했는데 편지가 늦어졌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서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반 노동자적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미 구속된 노동자 수만 20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역대 정권 중 최고라고 하던가요. 언제쯤이나 노동자가 고개 들고 허리 펴고 살 수 있는 날이 올러나 모르겠습니다.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일원으로써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런 날 말입니다.

저는 한성여객이라는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다 작년 6월부터 107일 간의 파업 도중 문화부장 직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의 역량과 조합원들의 땃 힘 부족으로 파업을 접고 그 책임을 지고 이곳에서 지

루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파업을 철회하고 얼마 뒤 한성여객 노동조합은 한국 노총 산하 자노련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였구요. 이 상급단체 변경은 회사의 요구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간에 조합원들에게는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날아 들었습니다.

파업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합원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제 4월이 되면 1심 만기가 되기 때문에 3월말 경에는 우리의 1심 재판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양심수 분들에 비한다면 6개월이라는 1심 기간이 길지만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처음 하는 생활이라 그런지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민가협에서 보내주시는 영치금이 다른 동지들의 성금에 의해서 보내지는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그 돈을 이렇게 받아도 될 만큼 제가 한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러면서 한편 이렇게 내가 기억되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더 이상 민가협의 양심수후원회 활동이 없어도 되는 그런 세상을 기원해 봅니다.

2004년 2월 17일
성동구치소에서 김정배

[편집자주] 김정배(성동구치소 82)님은 지난해 11월 11일 한성여객 파업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버스는 안전하게 달리고 싶다

민가협 여러분께

벌써 두 달이 되어갑니다.

봄기운이 서름 서름 느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 전해투 위원장 이영덕입니다(2월 6일 총회로 임기는 끝났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체포되어 이제 재판 두 번 받았습니다.(8월부터 수배)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버스회사 한성여객에 해고자가 12명이나 발생했고 이로 인해 6월 18일부터 파업을 했는데 거기 함께 투쟁했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여기에는 한성여객 노조간부 3명과 영등포구 치소에 전해투 조직국장 강성철씨가 수감되어 있습니다.(작년 8월 30이 체포)

민가협 살림이 어려운데 이렇게 영치금을 넣어주시니 몸둘 바가 없습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의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현재 역시 해고자입니다. 노조에서 수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치금은 더 안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소식지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과월호도(작년 것 중)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저와 같은 노조에서 해고자로서 2000년부터 수배 중이었던 동지 한 명이(박동진)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은 건으로 수배중인 해고자가 또 한명 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9년에 한번 수배되었다가 체포된 적이 또 한번 있었는데 노사간에 다툼이 생기면 회사에서는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출두도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투쟁도 못하게 하면서 나중에 잡히면 공안관련 죄라하여 공안검사에게 특별조사를 받아 노사문제가 아니면 별 문제 아닌 것으로 구속은 기

본이고 잘되야 집행유예 아니면 징역살이입니다. 특히 저는 99년 건으로 집행유예가 있었고(1년/2년) 2002년도에 공단 이사장에게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다가 또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10월/2년) 집행유예가 있으면 매사 조심하지만 여지없이 큰 일 아닌 사건으로 고소 고발 당해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조심조심했지만 또 구속되었고 집행유예 기간이라 재판이 순조롭지 않아 보입니다.

가끔 사면이 있을 때 기대를 해봅니다만 이번에는 사건 계류 중이라 어렵다고들 합니다.

작년 사면 때 집행유예가 99년 건만 되고 말았습니다. 노동자라면 (구속자) 저 말고도 어려운 사정이 구구절절이 있을 것이겠지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구속자가 5명, 불구속자 26명 수배자 2명입니다. 구속자도 문제지만 불구속자의 애로사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벌써 1차분 1억2천여만원을 월급에서 50%씩 공제(가압류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민가협 여러분들의 안녕과 건강을 빌면서 두서없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 2월 26일
성동구치소에서 이영석 씀

[편집자주] 이영덕(성동 구치소 93)님은 지난해 12월 31일 한성여객 파업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도 들리는데 통일은 언제쯤 오려나

오영순 편집위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법원 안 잔디 교정을 바라보자니,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충동을 불현듯 느낀 날이다.

무슨 사연들이 그리 많을까? 오고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하기 그지없었고, 저마다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그 안은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얼굴도 뵈지 못한 분을 만난다는 설레임과 초조함을 뒤로하고, 가냘프게 들려왔던 목소리의 주인공 박석분 사모님을 대면하고 보니, 작은 체구에서 풍겨오는 당찬 기운이 내 몸 안에 파고드는 듯 했다.

만나기 전 두세 번 통화하는 속에서도 분주하게 생활하는 듯한 사모님의 음성에, 사실 그렇게 시간을 내달라 말하기조차 미안함이 들었기에, 준비 없이 만난 필자는 펜스레 시간에 쫓겨 두서없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헤칠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셨다는 두 분! 어렸을 적에는 서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지나치다, 그 이후 고등학교 시절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친숙해지셨다 한다. 단지 친구 사이로 교회 썬클 활동을 같이했고, 그 시절 시대적으로 암울했던 시기라, 자연스레 교회에서 이뤄지는 모임 안에서 사회의 모순들을 깨우치게 되었다 한다.

대학에 먼저 진학한 사모님이 일년 재수를 하고 있는 김종일 선생님께 활동의 길로 먼저 인도하셨다 한다.

80년 5·18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나던 해!

사모님은 4학년이었고, 김종일 선생님은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한다. 시대의 아픔 속에 자신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민주화의 부활 운동과 고려대 농대 학생회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던 김종일 선생님에게도 수배가 떨어졌다 한다.

이때부터 더욱 가중된 고초를 두 분이 같이 나누게

되었고, 김종일 선생님 은신처를 사모님이 마련해주면서 두 분이 부부로 결연하게 되셨다 한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사모님은 지역활동과 야학활동에 주력할 수 있었으나, 생활고 때문에 출·퇴근할 수 있는 장교로 군대를 입교한 선생님의 수입으로 신혼 생활을 겨우 겨우 모면하며 지내오신 듯하다.

그러던 87년, 전두환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가 노골화되어 갈수록 민중의 저항 의지가 높아져 6월 항쟁이 발발하여 구로항쟁이 터지게 되는데, 이때 구로항쟁에 참여하신 김종일 선생님은 그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셨다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순간 일어나는 시대적 아픔이 어찌 한 두 해에 그칠 수 있는 문제인가? 야학활동에서부터 지역 활동을 초점으로 지금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단체에서 부부가 나란히 통일세상을 여는 운동을 숙원 사업으로 삼고 일하고 계신다 한다.

지난 세월 속에서 이번이 세 번째 구속이라는 김종일 선생님! 작년 10월 26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려다 무산되던 날 연행되어 28일 구속되었다 한다.

언제나 그렇듯 민주화의 부르짖음을 외치는 자들에게 씌워주는 올가미들! 그 속에 펼쳐지는 부당한 대우들! 이번 구속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구속되어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 사모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구속되어 있음으로써 정신적·경제적으로 오는 힘겨움보다는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몰랐던 운동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고 열악한 것이 오히려 더 답답하노라고…….

여느 부부처럼 아이들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없느냐는 충고와 채찍질로 잔소리를 유독 많이 하셨다는 사모님!

구속되어 있는 남편에게 구속되려면 제대로 구속되라며 질책을 하셨다는데 어찌 그게 질책일 수만 있을까? 되려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굳건히 신념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걸으며 살아오신 두 분의 모습을 요즘 세대 부부들이 헤아리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에 미치자 경이롭기만 하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통일염원만 바라보며 매진해왔기에, 이번에 나오면 가정사도 좀 챙기고, 두 분의 건강도 돌보면서, 조금 여유를 갖고 활동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모님의 얼굴 위에 지친 모습이 역력히 들어남에 잠시 필자는 할 말을 잃었다.

분단된 조국 현실을 보면 눈앞이 아득해지고, 어딜 가나 청년학생이 많이 보이지 않음에 혹여 앞서 걸어오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에 청년학생들이 투쟁의 역사를 진정 돌아보고 이 역사의 책임을 지는데에 앞장서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사모님의 말씀 속에는 간절함이 배어났다.

이야기보따리를 다 풀지도 못한 채, 주섬주섬 재판시간이 다 되어감에 김종일 선생님 재판이 이뤄지는 현장으로 들어갔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네 같지 않게 주변에서 천재 소리와 풍부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을 판·검사들이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올곧은 소리를 내뱉는 정의로운 자를 재판하며 묵어놓고 있는 현장을 힘없이 지켜보고 있자니, 안타까운 이 현실이 사라져야 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법원을 나서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따스한 햇살이 다 사라지기 전, 하루 빨리 김종일 선생님이 세상 밖으로 나와 두 분이 봄 햇살 기운도 받으시고, 떠나보지 못했던 여행도 다녀오시길 마음 속으로 기원했다.

그러기 위해선 젊은 청년 학생들의 진정한 발걸음이 넘쳐나 두 분의 어깨 위에, 아니 앞서 걸어오신 모든 선생님들께 통일 세상을 앞당겨드려야 한다는 소원도 함께 지녀본다. ✎

[편집자주] 김종일 여중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촛불집회, 백악관 항의방문 투쟁 등 반미투쟁을 주도하던 중 지난해 10월 25일 구속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것을

정현중 시인

나는 가끔 후회 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병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아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몸과 마음이 모두 예쁜 언니

김혜순 회원

지난 148호 후원회 소식지를 읽노라면 제목과 글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편의 글을 보게 된다. 겨울 북한산의 설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거기에 올라 삶의 겸손을 느꼈다는 재현 언니의 산행기—‘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이다. 언니, 근데 산에 가서 그구호 외치기는 했어, 했더니 응, 했다. 그럼 됐네, 뭐!

요즘 들어 부쩍, 후원회 산행이며 목요일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언니에게 ‘제목’은 익숙한 구호가 되었다. 올 겨울, 서산에서 있었던 옴시롱감시롱 총회에서 감자떡과 안홍진빵을 잔뜩 사온 대가(?)로 회장이 된 언니는 사실 부담감을 많이 가졌다 한다.

“잘하려고 노력해도 표시도 안 나고 걱정이 많이 돼. 옛날에는 나 아니라도 일꾼들이 가니까 됐었잖아. 그래서 행사라도 빠지지 말고 다니자, 하게 되었지.”

덕분에 소식지에서나 뵈던 선생님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어쩐지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떡 사 가지고 가서 선생님들 대접하고 그런 단다. 2003년 후원회 역사강좌 때 가끔 말로 떡을 해오던 언니의 모습과 사뭇 닮아 있다.

이렇게 갑자기 후원회 골수 회원이 된 언니는 아직도 선생님들의 이야기며 역사적인 문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열린 생각이 언니 성장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1997년 가을 어느 날 고창 선운사 역사 기행을 가게 되면서 이종환, 조창순 선생님 등 몇몇 장기수 선생님들을 만나고 옴시롱감시롱도 알게 되었다. 지금도 선명한 이종환 선생님의 선하고 해맑은 얼굴을 보면서 고통을 이겨낸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일까? 사실 언니는 군인가족으로, 때때로 정훈부에서 실시하는 보안 교육을 받았고 당연한 결과로 선생님들은 ‘빨갱이’였지만 선생님들을 가까이서 뵈기 시작하면서 이마에 써지지 않는 이상 진짜로 모르겠다고 바뀌어있었던 것이다.

인생의 황금기를 라디오도 잡히지 않는 민통선 안 7

사단에서 하루에 세 번 오는 버스에 바깥소식을 전해들던 언니는 90년 서울로 이사를 나오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 전방 생활과는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며 뺄있는 장교들은 전방에 가지 않고도 승진가도를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경제적 어려움도 덜 겸 언니는 95년 산본에서 레코드 가게를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전업주부를 탈피하고 일과 함께 자유를 쟁취(남편은 지금도 저녁 약속이 없으면 7시 칼퇴근을 한다. ~~해~~ 나갔다 한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주말이나 주중의 밤늦은 시각 어느 때라도 자유로운 언니의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언니 나이 마흔 셋, 옴시롱감시롱 총회 때 이용준 회원과 어찌나 다정하게 안면도의 해수욕장을 걸었던지 우리 딸 상화가 둘이 결혼하라고 했더니! 예끼 이놈, 사위나 되면 모를까!!

언니를 자유롭게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 유아 교육을 전공하는 스무 세 살의 딸과 창작음악을 하는 스무 살의 아들이 있다(이들의 끼는 언니의 작품이다). 혹자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할 것이다. 21살에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다. 고등학교 때 무용을 스스로 기획해서 군부대 위문공연도 갈 정도였던 딸이 대학을 갓 입학하자마자 남자를 알아 결혼을 하겠다니... 그 새벽녘 아버지에게 붙들려 죽을 뻔하지 않았다면 어찌 지금의 가족이 존재하겠는가? 잘은 몰라도 언니 남편도 순한 담배같은 사람이다.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게 소원이었다는 점이 그렇고 언니 회장 되었다고 주말 만남해도 군소리 없으신 걸 봐도 그렇고.

무용을 해서 그런가? 늘 몸이 예쁜 언니.

거기에는 또 하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비법이 있다. 무슨 격렬한 운동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명징하게 하여 몸을 다스리는 국선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거다. 어느 단계에 가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그 순간 빠질 수 없는 재미를 느낀다니 도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 그러므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하~~

‘청년의 모습 청년의 정신!!!’

유병수 회원

내가 중국에 간지도 어느덧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물론 1년에 한번씩 한국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곤 했었으니까 그다지 한국이 낯설거나 뭐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는 예전과 느낌이 사뭇 달랐다. 1월 16일 상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다. 또 여기저기 보이는 한국 글씨의 간판들. 이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설레임과 들뜸을 느끼면서 참 이상했었다. 어쨌든 이번에는 산에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오랜만에 양심수후원회의 식구들과 함께 산행하고픈 맘이 간절했었다. 이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후원회 산행을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들었었지만 한달도 되지 않는 체류기간으로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어 함께 하지 못했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일정이 맞았고 후원회 산행을 꼬옥 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은 터였다.

산행 전날은 여든여덟(한양대 탈반 88학번들의 모임)의 모임이 있어서 파주에 갔고 그곳에서 낄밤을 새며 술을 마시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새벽 3시 반 정도에 취침을 했다. 모두들 딸린 식구들이 있어서 산행을 할 수 없었고 나는 혼자서라도 가겠다는 일념으로 5시 30분에 기상해 서울에 있는 집으로, 그리고 다시 우이동 그린파크를 향해 전력 질주.

혹시 늦을까 쌍문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우이동 그린파크 앞에 도착. TV를 통해 가끔 보였던 권오현 회장님과 정말 오랜만에 보는 현익이형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혹시 이전에 산행을 같이 했던 장기수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눈을 둘러봤지만 계시지 않

았고,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많이 참석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 오랜만에 선생님들도 뵙고 함께 산행하고 싶은 맘에 정말 멀리서 달려왔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나만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내가 중국에 간지 5년이란 세월이 흘

렀으니 그동안 선생님들께서도 더 많이 연로해지셨을 텐데 말이다. 어쨌든 나는 선생님들을 청년의 모습, 청년의 정신으로만 기억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많은 선생님들께서 오시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들 곁에 있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안고 비가 내리는 속에서 우리는 산행을 시작했다. 비가 좀 멈추었더라면 산행도 계속하고 도시락도 산에서 까먹었을텐데 비가 수그러들지를 않아 원통사에서 하산. 싸온 도시락은 식당에서 해결. 산에서 먹었으면 더 맛이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9명의 후원회원들은 점심을 맛있게 먹었고, 다음 산행에는 한사람씩 더 데리고 오자는 인원 배가운동을 결심하며 헤어졌다. 나도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약속을 하며 돌아섰는데, 이게 웬일, “중국에 들어가는 시기가 한 달 정도 늦춰져서 다음 산행에 다시 나가렵니다. 그때는 저도 배배배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날씨도 풀릴테니 선생님들께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많이 오셨으면 좋겠구요.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은 꼬옥 오셔야되구요. 약속 지키세요.”

[편집자주] 유병수 회원님은 지난 5년간 사업차 중국에 계시다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중국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인데도 후원회를 먼저 찾아 주신 마음 감사합니다.

봄날, 이 땅 농민들 희망의 싹은...

봄...

FTA 지나간 산간에
죽음처럼 고랑진 들녘에
눈물같은 싹·넙이
파랗게 번진다
이 땅 농민들
희망의 싹은
어디서, 언제쯤
돌아나려는지....



경향신문 2월 19일자 <김용민의 그림마당>에서.
— 김도균 편집위원 추천

02 여의도 국회앞에서 이라크파병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 국회비준 결사저지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다. 박석운 운영위원장 사회로 오종렬 상임공동대표의 여는말, 범남본 나창순 의장, 권오현 대표 등 동의안 비준 반대결의 발언, 홍근수 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이어 대표단, 범남본 반미애국농성단과 함께 농성에 들어가다. 정리 집회에서는 오종렬, 권오현, 홍근수, 청년·학생 등 결의발언이 있었음.

국회 법제사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과거청산 4대법안 중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법, 일제강점 하 강제징용 진상규명법, 동학명예혁명 회복법' 등 3개법안을 통과시키다.

현대아산이 지난 1998년 11월 첫 금강산관광을 한 뒤 2일 274명이 육로를 통해 금강산에 감으로써 이날까지 모두 600,189명이 되었다고 발표하다.(해로관광 557,681명, 육로관광 42,508명)

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한 북측대표단(단장 김령성 내각참사) 5명과 수행원 등 28명이 인천공항을 거쳐 신라호텔에 도착 정세현 통일부장관(남측단장)의 영접을 받고 저녁에 고건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 함께하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KAL 858기 사고 희생자 차옥정 유족회장 등이 사건기록을 보관중인 서울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5200여 쪽 기록 등 개인 신상과 80쪽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다. 이번에 공개될 자료는 김현희씨의 피의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로써 탄원서, 진정서,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사체부검의뢰서, 검사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문서, 공소장, 증거목록, 공소장 변경신청서, 항소장, 변론요지서, 상고장 등 공판기록이 포함되고 있음.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다음번 6자회담 개최문제와 관련 기본당사국인 우리(이북)와 미국, 그리고 중국과 합의를 거쳐 2. 25일에 6자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하다.(언론보도)

용신구민회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이·취임식 및 4기 민주노총 출범식이 열리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김종일 여중생범대위 집행위원장에 대한 집시법 등 위반혐의 증인신문이 있었음. 변호인 측의 덕성여대 학생이 증언을 통해 김종일 집행위원장은 부당하게 강제연행돼 온 학생들을 면회 왔었으나 경찰이 불법시위라며 오히려 면회 온 사람들을 폭력으로 해산하려 했다고 증언.

13차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4일 북측 김령성단장은 지난 1년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었다며 남측의 소극적 자세를 지적하다. 그 가운데 미국의 북남관계 조절요구를 일축하지 못했고 우리민족끼리 이념도 저버렸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협력다운 협력이 없었다고 지적

일본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일본의 대북제재 법안 규탄기자회견'을 열다. 범남본 이정원 사무처장 사회로 이천재 서울연합의장의 여는말, 김승국 통일연대 학술위원과 권오현 대표의 규탄발언, 한상렬 상임대표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었고, 대표들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다.

명동 향린교회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주최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2차 송환대상자 11명과 사회단체 성원, 통일광장 선생님들 4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노진민 집행위원장 사회로 기자회견 취지 말에 한상렬 목사님, 2차 송환 희망자이신 서옥렬, 방장련 선생님의 사례발표, 권오현 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질의응답이 있었음. 송환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당국에 촉구하는 운동을 하는 한편 국제적십자사와 국제사면위원회 등에 의뢰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송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하다.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504회 목요일집회를 열다. 서경순 전 상임의장의 여는말, 친일인명사전편찬모금사업과 관련하여 이관복, 방학진 씨의 취지발언 등이 있었음.

서울지검 기사실에서 KAL 858기 희생자 유족회와 김현희 858기 사건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858기 사건의 수사기록 재판기록 등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자료공개를 하라고 주장.

후원회소식 148호 원고 최종교정본을 기획사에 넘기

다. 여혜정, 이승미, 박정범, 권오현 함께하다.

☞ 참여연대 등 289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2004 총선시민연대는 부정비리, 반인권, 경선불복 등을 기준으로 한나라 66명, 민주당 20명, 열린우리당 7명, 그 외 6명 등 모두 60명에 대한 낙천자 1차 명단을 발표하다.

06 서초동 법원앞에서 '이종린선생, 민경우사무처장 무죄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최로 '민 경우 사무처장 간첩조작 규탄과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김건수국장사회로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의 취지 여는말,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의 간첩조작 규탄과 공정한 재판촉구발언, 노수희 전국연합공동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서울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 첫 재판이 열린다. 민경우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원칙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지만, 본인을 이 재판정에 세울려면 재판부가 먼저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다며, 첫째 이북공작원이라고 하는 박용 공동사무국 부총장의 서면진술을 통한 사실 확인, 둘째 한나라당 정재문의원이 북경에서 이북의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을 만난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사실과 관련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에 대한 해명, 셋째 범민련 공동사무국과 미국의 민족통일 등 홈페이지에 들어가 현재의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다. 이어 검사의 직접심문에서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는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전달이 아니라 통일대축전 등 공동추진본부의 위임에 따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국에서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 행사내용 등을 알린 것이라고 반박하다.

☞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라크파병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파병동의안 국회통과저지 결의대회'를 열다. 외환카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청년 학생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대회사, 오종렬 대표, 외환카드노조대표, 이주노동자대표 등의 결의발언, 외환카드노조원의 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음.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이라크파병국민행동 주최로 '망국적 파병동의안 처리강행 한나라당 규탄대회'가 열

리다. 권오현, 홍근수, 이종린 대표 등 규탄발언이 있었음.

☞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합의하고 마치다. ①남북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6자회담에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한다. ②남북군사 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도록 한다. ③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을 이룬 시일 안에 개발하고 올해 상반기 중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 개발에 협력 ④임진강 수해 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표문제, 상대방 비방방송중단 등 ⑤9차 이산가족상봉을 2004년 3월말 금강산에서 실시 ⑥14차 장관급회담을 2004년 5월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기로 한다 등.

☞ 전국국민연대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0여 단체는 국회앞에서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와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충분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 후원회소식 148호 발송 작업 - 낙성대 만남의집에서 문상봉, 김영식, 나순석, 이용준, 변의숙, 김혜정, 이봉주와 부인 등이 애썼습니다.

07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 이라크파병 동의안 저지 국회 앞 농성6일째에 함께하다.

08 경희대 크라운회관에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13기 대의원대회가 열린다. 2004년을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을 이루는 해, 3년 계획의 결실을 거두는 해로 만들자는 혁신단결을 외치며 12기사업보고와 승인 13기 사업 및 예산안을 채택하고 오종렬 상임의장과 정광훈, 노수희 의장을 다시 뽑다. 대의원대회에 이어 의장단 추대와 출범식 행사가 있었음

09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파병 국회비준동의저지 결의대회'가 열린다. 참가단체 성원과 청년학생 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1,2차례에 걸쳐 오종렬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 문경식 전농의장, 이주호 민주노총위원장, 백종호 한총련12기 의장, 홍근수 자통협 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등의 결의발언이 있었고,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노래패 우리나라, 젠 등의 파병반대 내용의 노래공연도 있었음 - 한편 이날 아침 문정현신부, 홍근수목사, 진관스님 등은 국방위원장 집

을 방문, 국회출근을 저지시키며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 요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는 전국에서 올라온 20,000여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농민연대 주최로 '한·칠레 FTA반대 전국농민대회'를 열다. 전국기톨릭농민회 송남주 회장의 대회사, 전농 문경식 의장, 농업경영연합회 서정의의장의 FTA 반대결의 발언이 있었고 한국농업기술자협의회 강춘성 회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이어 농민들이 국회 앞에서 이라크파병 반대, FTA비준동의인반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함께 모여 대회를 열고 있을 때 경찰의 물 대포 방해책동으로 참가자들과 충돌, 여의도공원에 이르는 곳곳에서 투석전 등이 열려 많은 농민들이 중·경상을 당하고 강제연행 당하다. 이러한 경찰과의 공방을 밤10시 국회에서 FTA동의안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있을 때까지 이어지다.

국회국방위원회는 오후 이라크 추가 파병안을 12대2로 가결하다. 그러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다. 또한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17명의원이 나서 찬반토론이 있었으나 투표방식 등 의견이 갈려 동의안 처리를 연기시키다.

국회본회의에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재외 동포법),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노근리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혁명특별법)을 통과시키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이북에 경제제재를 할 수 있는 외환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을 지난 1월 29일 중의원(하원)에 이어 다시 통과시키다. 이는 조·일 평양선언을 파기하고 국제관계에서의 배신행위였음.

10 명동향린교회에서 여중생범대위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자주평화촛불기념비 재 건립문제 등 협의하다.(홍근수, 한상렬, 진관스님, 권오현 등)

서초동 법원 앞에서 송두율교수 대책위원회 주최로 '국가보안법철폐와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추구기자회견'을 열다. 신정환 교수 사회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대표의 여는 말, 김세균 교수의 볼프 디히터 전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교수, 한스 크리스티안 스트뢰벨

레 독일 녹색당 국회의원 등이 송교수 담당재판부에 낸 석방추구 탄원서 내용설명, 정정희 여사의 인사말씀 등이 있었음.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송두율교수 국가보안법 사건 7차공판을 열고 검찰 측 증인 홍진표씨의 증언을 듣다. 그러나 사상전향자의 공정한 증언에 객관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남게 하다.

광화문 열린 시민마당에서 SOFA개정국민행동,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평택대책위, 민주노동당, 평통사 등 공동으로 제53차 미대사관 반미연합집회가 열리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용산기지이전비용 한국부담과 평택대채부지 제공, 이라크파병 등을 반대하다. 마지막으로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노무현대통령이 부시에 전달하는 치욕스런 장면의 퍼포먼스가 있었음.

음시통감시률에서는 같은 회원으로 있으면서 2000년 9.2일 복讞으로 송환 되어 가신 김선명 선생님 79회 생신을 맞아 축하광고를 내다.

11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창립대회를 열다. 각계 사회단체 인사 70인이 함께한 가운데 황인성 집행위원장 사회로 경과보고에 이어 이돈명 변호사의 격려 말, 김근태 의원의 축사 등에 이어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을 임시의장으로 뽑다. 운영규정과 정관을 토의끝에 통과시키고 김종배 상임대표 등 임원 선임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김종배 대표의 인사말과 사회를 보면서 복讞에 못자리비닐 보내기 운동 등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 승인하다. 노래패 우리나라의 축하노래, 백도웅 KNCC총무의 창립선언문 낭독 등이 있었음.

12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푸른 샘에서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이적규정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무기한 농성단 공동으로 '윤기진·황선 결혼식 안정적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다. 한상렬, 윤한탁, 권오현 대표의 두 사람의 안정적 결혼식 보장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발언이 있었고 황선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권오현, 윤한탁 대표 등 서울경찰청을 방문 이정규 보안과장과 면담을 하며 두 사람의 안정적인 결혼식 보장 등을 촉구하다.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506회 목요집회를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석방 촉구 내용으로 열다. 임기란 전상임 의장의 여는 말, 민경우 사무처장 부인 김혜정씨와 대책위원회 김건수 사무처장의 사례발표 및 무죄석방 촉구 발언이 있었고, 이영 부회장의 양심수사면 촉구 성명서 낭독이 있었음.

▲ 이화여대 삼성언어교육관 1층 강당에서 송두율교수 사건과 관련 '경계를 넘는 사람들' 주제로 송두율과 그의 벗들을 주제로 한 '경계에 피는 꽃' 문화공연이 열렸음. '꽃다지'의 여는 공연에 이어 신동호 시인 사회로 이지상의 창작 주제곡 '경계에 피는 꽃', 성북동 성당 마니파작 소년·소녀 합창단의 '어린이의 목소리를 넘는 경계' 김세균 교수의 '경계를 넘는 이야기', 이명국 창작관소리 '경계인 (대본 최해성), 박호빈의 창작무용 '경계를 넘는 몸짓', 우리나라 '벗들에게' 노래공연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송교수 아드님 송린의 피아노반주와 정정희 여사의 나의 살던 고향' 노래, 이어 출연진과 각계 대표 모두 나와 함께 경계를 넘는 대 합창 '상록수'를 부르면서 마치다.

▲ 안국동 느타나무 카페에서 평통사, 전국연합 등 58개 시민사회단체와 300여 각계 인사들 이름으로 '천문학적인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반대와 평택대체부지 제공을 반대하는 각계인사 3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다.

13 용산국방부 앞에서 평통사, 자통협, 민주노동당, 평택대책위, 여중생범대위 등 공동으로 '물욕적인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 가서명 중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회견에서는 ①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을 즉각 중단할 것 ②평택주민을 두 번 죽이는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을 백지화할 것 ③한·미 양국은 더 이상 우리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가서명을 중지할 것 등을 촉구하다. 마치고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제7차 미래한·미동맹 정책회의가 끝날 때까지 농성에 들어간다.

▲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라크파병 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파병 국회동의안저지 결의대회'를 열다. 박석운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로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대회사, 이규재 범남본 부의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최선희 평화를 여는 여성회 사무처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 의장 등의 파병동의안 저지 결의발언이 있었고 문경식 전

농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박준, 우리나라 등 문화공연도 있었음. 이어 국회에서 동의안 저지를 놓고 반대토론을 하는 동안 1000여명 참가자들은 국회로 가려했으나 경찰저지로 대치상태에 있을 때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가결소식이 들려와 그 자리에서 추가 파병안 통과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파병철회투쟁을 선포하다.

▲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라크추가파병 비준동의안을 반대토론만 한 가운데 찬성 155명, 반대 5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하다.

▲ 한나라당사 앞에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주최로 '반인권 반역사 한나라 당 규탄 및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완전쟁취 결의대회'를 열다. 32개 유족회와 51개 인권시민단체 등 한국전쟁 유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대표들은 유해를 들고 한나라 당 최병렬 대표를 만나려했으나 경찰저지로 몸싸움 끝에 해산.

▲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로 복역 신념의 고향으로 가셨던 강동근 선생님께서 12일 6시 87세를 일기로 중증 다장기부전으로 서거했다고 이복 조선중앙통보를 인용 보도하다.

14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초대 의장과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등 진보사회과학 학계를 이끌어 왔던 김진균 서울대 명예교수(양심수후원회 회원)가 대장암으로 오랜 투병을 해오다 14일 오전 6시 30분 향년 67세를 일기로 별세하다. 고인의 장례식은 '민중의 스승 고 김진균 선생 민주사회장'으로 하기로 하고 17일 영결식을 갖기로 하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빈소를 문상하고 명복을 빌다.

▲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4·5도크 위에서 이 회사 협력업체 인터기업 전 근로자 박수일씨가 이날 오전 5시에 '비정규직 차별철폐',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등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다.

▲ 부안 핵폐기장 유치문제를 놓고 찬반투표가 이루어지다. 총유권자 50,787명 가운데 37,44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146명(5.7%) 반대 30,472명(91.83%)으로 유치반대가 확정되었음을 공표하다.

15 6년의 정치수배를 받아오던 애국청년학생이 수배자신분을 넘어 만인 앞에 떳떳이 결혼식을 치루었음. 덕성여대 학생회관에서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과

황선 대변인이 신랑, 신부로서 양가부모님과 친지, 사회단체 대표와 청년학생 등 6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의 주례로 백년가약의 화축을 밝혔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6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라크파병저지반미애국 단식농성 65일을 마감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와 반미애국단식농성단 주최로 '민족존엄 짓밟는 치욕적 파병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이경원 사무처장 사회로 나창순 범남본 의장의 여는말,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파병결정 규탄발언, 전농 윤경식 의장의 성명서 낭독,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낭독 등이 있었음.

☞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찬성 162명, 반대 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하다.

☞ 국회 앞에서 전국농민연대 주최로 '한·칠레 FTA비준동의안 저지 전국농민대회'가 열리다. 기톨릭농민회 정재돈 회장의 대회사, 전농 문경식 의장, 전여농 윤금순 의장 등의 비준동의안 저지 결의발언 등이 있었고 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공연이 있었음. 오후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한 2000여 농민들과 청년학생들은 국회로 진격하려 했으나 방패와 곤봉, 물 대포, 최루탄 등으로 과잉진압을 하여 많은 농민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강제 연행되다. 농민들은 오후 늦게 다시 규탄정리집회를 열고 찬성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선언하다. 서정의 농민연대의장의 대회사,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장, 오종렬 전국연합상임의장, 백종호 한총련 12기의장 등의 규탄발언이 있었음.

☞ 수원 이주대학교 성호관 소극장에서 이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자주대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한마음 문화제'가 열리다. 부총학생회장 사회로 이주대 자주대오사건 상황보고, 민주노동당 지구당위원장의 조작음모 규탄발언,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공안탄압 규탄발언이 있었고 이어 이주대 각단위의 문화공연과 초청가수 극단 '미래'와 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공연이 있었음. 마치고 이날 집행유예로 풀려나 문화제에 함께한

노종옥, 노희완, 하재용, 전세훈씨를 만나 격려하다.

17 진보학문과 민중운동을 이끄는 데 지도적 역할을 해오다 세상을 떠난 고 김진균교수의 장례가 '민중의 스승 고 김진균선생 민주사회장'으로 치루어지다. 8:30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갖고 대학로까지 운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영결식을 가졌음. 박석운 장례식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 서관모교수의 약력소개, 고인의 육성 재현, 손호철교수의 조사, 백기완선생의 조사낭독, 권대환교수, 이수호위원장, 정광훈 의장, 권영길 대표, 강정구, 황상익 교수의 추도사가 있었음. 이어 장사익, 최도은, 꽃다지 등의 조가, 김미선의 추모곡이 있었고 가족대표 김세균 교수와 호상 장임원교수의 인사말이 있던 다음 유족과 장례위원 등 헌화시간이 있었음. 이어 마석모란공원으로 이동 홍근수목사의 마지막 조사와 함께 열사묘역에 안장되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18 민가협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다. 활동보고, 재정보고, 인권콘서트 중간결산보고 등이 있었고 참여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양심수식방운동, 집시법개악에 따른 불복종운동문제, 총회준비위 구성 및 일정 등 논의.

☞ 영등포 민주노총회의실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6차 상임대표자회의를 열다.(오종렬, 강민조, 권오현대표와 한충목 집행위원장, 박석률 국가보안법팀장, 박희영 사무국장 함께) 안건으로 2004년 계승연대 사업계획안 토의, 계승연대회칙 제정문제, 계승연대 추천분과 위원들과의 간담회건, 의문사법, 명예회복법 개정문제 등 논의.

☞ 낙성대 '만남의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제15차년도 제9차 운영위원회 열다. 활동보고, 재정보고에 이어 16차 총회준비위구성문제,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 마련 서화전 준비문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문제, 비전향장기수 송환 및 송환비전향장기수 상봉문제 등 논의.

19 탑골공원에서 민가협 507회 목요집회 열리다. 여는 말에 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나동혁대표 등 2명 나와 최근 구속된 염창호씨와 이라크 파병반대 양심선언을 했던 강철민씨 사례 발표하다. 마지막으로 임선순 민가협회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염창군을 즉각 석방하라'는 성명서 낭독.

☞ 대한적십자사(총재이윤구)는 제9차 이산가족상봉

(3.29~4.3) 후보자 200명을 선정, 북측에 생사확인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짐. 남자가 135명, 여자 65명, 80대가 90명, 70대가 77명, 60대가 23명, 90세 이상이 10명이라고 하다.

20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4기 출범 총회가 송실대 사회봉사에서 열린다. 성원 확인에 이어 21세기 코리아연구소 가입신청을 승인했고 결산보고와 감사보고가 있었음. 지난 1년 동안과 지난기 동안의 부채총액이 49,800,000 여원이고, 가입단체의 회비 등 미납금이 50,000,000여만원 되다. 재정특별위에서 적극 수급하기로 하다. 이어 2003년 통일운동 및 통일연대 활동평가, 2004 사업계획안 토론 끝에 승인하다. 이어 4기 통일연대 인선안 확정했음. 그밖에 통일운동진영 총선대응에 대한 조치와, 일본국구주의 반대 제사회단체 선언 등 채택하다.

21 평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미국의대북적대정책 반대와 민족공조실현 촉구대회'가 열린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규탄 발언에 이경수 서총련의장, 일본의 대북적대정책과 군국주의 부활 규탄발언에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마지막으로 김규철 범민련 서울시연합의장의 한·미·일 공조와 민족공조 강조발언이 있었음.

▲ 음식통감사료 목동 한경남화원집에서 2월모임을 갖고 5월초 정기기행등 논의하고 지난해 애써 주었던 김혜순 으뜸일꾼들에게 감사 표시하고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이 학생들에 격려표시.

22 양심수후원회 2월 산행이 있었음.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이동 그린파크에 모여 우이능선을 거쳐 우이암 밑 원통사까지 올랐다가 우이동 다른 계곡으로 내려오다. 북어국 시켜놓고 준비해간 맛있는 점심 함께 하며 최근 파병문제, FTA국회통과,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등 시사문제 토의 (유기진, 김재선, 조명희, 김재현, 신현익, 나순철, 유병수, 이용준, 권오현 등)

▲ 한양대 학생회관 콘서트홀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9기 2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8기 사업보고 및 평가안 실시, 8기 결산보고 및 심의, 감사보고 및 승인, 9기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및 승인, 대국민호소문 채택 등이 있었음. 이어 같은 자리에서 범남본 결성 9월 기념식이 있었음. 나창순의장의 기념사와 각계 축

사(임방규, 한상렬, 오종렬, 문경식, 강승규), 희망새 등 축하공연이 있었음.

▲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播人 권오창선생 고회출판기념회가 열렸음. 실천연대 공동대표이기도한 권오창선생은 통혁당사건 등으로 여러번 옥고를 치루었으며 '우리민족끼리' 책을내어 이날 출판기념회를 갖게 되었음. 홍근수, 윤한택, 서경원, 권오현, 오종렬의장 등이 축사를 했고 권오창선생의 인사말이 있었음.

23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통일연대 등 60여 시민사회단체 이름으로 '한반도 위기해소를 위한 진전된 6자회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사회로 이김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의 여는말,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의 6자회담에 즈음 관계국 입장해설, 변연식, 한중목씨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서울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민 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2차공판이 열림. 김승교 변호사의 반대신문과 검사의 재심문 등이 있었음. 쟁점이 되고 있는 공소 2항의 국가기밀 혐의에 대해 2000년 통일대축전 범민족대회 등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기에 국가기밀이 될 수 없고, 또한 공동사무국에 알린 것도 8·15행사준비위원회 위임을 받아 범남본에서 보냈을 뿐 민사무처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 또한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지만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 증거 증인채택 등이 있었음. 마치고 법원계단에서 한중목 집해위원장 사회로 정리 집회.

24 서초동 법원 앞에서 송두율교수 석방대책위 주최로 '송두율교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을 열다. 조영건교수의 여는말, 정정희 여사의 결심공판이 늦어지는데 대한 규탄발언, 송두율교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 등이 있었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송두율교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공판이 열림. 특별한 심리 없었고,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 가입 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제정신청을 내다. 마치고 법원구내에서 정리 집회하다.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는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34차 평화군축집회를 열고, 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부담반대, 대규모 미국산 무기도입반대, 용산기지 협상과 평택대체부지 제공을 반대하고 항의서한을 국방부에 내다.

25 연세대 학생회관 푸른샘에서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와 한총련 무기한 농성단, 아주대 학 비상대책위원회, 남총련 등 공동으로 10기한총련 김형주의장 및 양심수석방,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국가보안법 철폐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한총련 농성단 정종성 단장 사회로 김규철 범남본 서울시연합의장의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한총련 이적철회 촉구발언, 최희영 순 전남대 총여학생회장과 김형주의장 석방촉구발언, 아주대 김상규 부총학생회장의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 사건 규탄발언 등이 있었고 권오현 범사회인대책위 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남과북 역사학자들은 평양에서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에 관한 남북토론회와 일제의 악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공동전시회를 열다. 악탈문화재 반환과 동해의 올바른 표기를 일본에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참여정부 출범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를 내다. 지난 1년동안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는 78명이고, 7조적용이 74명으로 94.9%였으며, 한총련 관련 구속자가 53명으로 67.7%였다고 밝힘. 또한 국가보안법 1심재판에서 100% 유죄판결을 했고, 11기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고 밝힘.

▲ 중국 베이징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차 6자(남,북,중,러,미,일)회담이 열려, 각 나라대표의 인사말과 기조연설, 양자회담 등이 있었으나 북미사이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26 민가협사무실에서 민가협 19차총회 제1차준비위원회를 열다. 총준위원장에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을 호선하고, 2003년 사업평가안, 2004년 사업계획안, 규약검토안, 상임의장 호선안, 총회보고서 및 총회준비안 등을 채택하고, 구학협과 민가협의 2003년 사업보고를 검토 평가하다.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508회 목요집회 송두율교수

무죄석방촉구 내용으로 열리다. 임기란 전상임의장의 여는말, 송두율교수 부인인 정정희 여사의 사례발표, 권오현 공동의장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송두율교수 무죄석방 촉구발언 등이 있었음.

▲ 대전기독교연합 봉사관에서 대전·충남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창립총회가 열리다. 1부순서 최교진 21세기 정책대안포럼대표 사회로 최병욱 전 기톨릭농민회장(이사장 추대)의 대회사, 장수한 수도침례대학교수의 경과보고, 이명남 목사의 격려사, 김병욱 충남대 교수와 권오현 계승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축사 등이 있었음. 2부에서는 정관심의 임원선출, 사업계획안 창립선언문 채택등이 있었음.

▲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다. 이법안의 친일반민족행위는 ①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 또는 권유한 행위 ②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한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③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체포, 살상, 학대, 처형하거나 이를 지휘한 행위 ④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행위 ⑤ 을사조약, 한·일 합병조약 그밖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조약의 문서에 조인한 행위 등이다.

27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6·15시대 낡은 정치심판 총선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다. 전국연합, 범남본, 전동, 한총련, 범청학련 남측본부, 반미여성회, 전국목회자협의회, 실천연대, 민화련, 한청 등 전국단위 단체를 구성원으로 한 총선운동본부 발족식은 통일맞이 정도상작가 사회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인사말, 김성란 통일연대 대외협력국장의 경과보고, 한총목 집행위원장의 총선운동본부 구성 및 체계설명, 김승교 변호사의 사업계획 설명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윤금순 전 여농회장과 이성복 목사의 발족선언문 낭독이 있었음.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6·25전쟁시기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와 전국에서 올라온 유족들 200여명은 '반인권, 반역사 한나라당 규탄 및 민간인 학살진상규명특별법 완전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낡은 색깔론과 이념구분을 하며 민간인학살진상규명에 당리당략에 따라 지연시키고 있다고 규탄하다.

28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핵문제해결을 위한 2차 6자회담이 예정보다 하루를 더하여 의장성명 채택하고 끝마치다. 의장성명에서는 한(조선)반도와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핵무기 없는 한(조선)반도에, 그리고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대화와 평등에 기초한 합의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의지를 표명했음. 또한 2004년 상반기 제3차 6자회담과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하다.

남북적십자사는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오는 3월 29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9차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할 후보자 200명씩 명단을 교환하다.

남과북 역사학자들은 평양에서 토론회를 마치고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역사를 지키고 민족의 안전과 번영, 통일을 이룩해 나간다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남북(북남)역사학자 협의

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연구와 토론회 자료교환 전시회 등의 활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다.

29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일제하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위원회, 참여연대 등 12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한나라당 위원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키게 한 점을 규탄하고 원안을 개악하고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각종단서를 달아 법안을 무력화 시키려 했다고 개탄하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 소속의원들과 네티즌들은 서대문 형무소터 앞에서 3·1절 민족정기 번개모임을 열고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의 원안통과를 촉구하고 나서다.

정순덕선생님 간병비 150만원 송금했습니다.

말지 5권, 민족21 10권 발송했습니다.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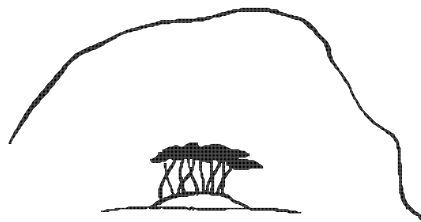
감사드립니다

- 미국에 사시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자주민주보 사건) 증언하러 귀국했다가 오히려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루셨던 송학삼 선생님께서 양심수를 위해 써달라며 563,012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름다운 가게’에서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에 써달라고 2,000,000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차 정기총회 안내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 16차 정기총회를 4월 24일에 열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날짜와 장소 확정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산행 청계산을 오릅니다



봄풀내음이 소록소록 피어오르는
산 흙을 밟아 보지 않으시렵니까?

만나는 시간 3월 21일 아침 9시 40분

모이는 곳 양재역 7번출구 순환주차장 건물 앞
갖출 것 따뜻한 옷, 도시락, 회비 3000원